

출장보고서

I. 출장개요

1. 출장자: 이장규
2. 출장기간: 2010.6.23~25
3. 출장지: 중국 북경
4. 출장목적: 북경사무소 15주년 기념세미나 참석

II. 출장일정

일자	행선지	활동사항	비고
2010. 6. 23	서울→북경	출국	-
2010. 6. 24	북경	세미나	-
2010. 6. 25	북경→서울	MOU 체결 및 귀국	-

III. 활동 내용

- ☐ 왕이밍 거시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초청 오찬에서 중국내 확대일로에 있는 소득불균형에 깊은 우려를 나타냄.
- 한국측 참석자 : 원장, 전현직 북경사무소 대표
 - 중국은 지니계수가 개혁·개방전 0.16에서 이미 0.47로 상승하였고, 독점업종 종사자에게 고소득이 집중되어 있다.
 - 한국의 소득재분배 정책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중국의

12·5 계획에서 소득분배 개선이 중요한 정책과제가 될 것임을 시사

□ 본원 채욱 원장과 후어젠꾸어(霍建國) 중국상무부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 원장은 양기간의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으며 양국의 경제상황 및 전망과 향후 기관 간의 협력방안을 논의함. 후어젠꾸어 원장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하였음.

-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지속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앞으로의 과제는 지속가능성장 여부에 달려 있고 이에 대한 한국의 경험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 최근 글로벌 위기 이후 중국은 V자 회복으로 거의 위기 이전의 단계가 되었지만, 성장방식을 어떻게 해야 할지가 문제이다. 내수를 중시하겠지만 내수의존형 성장으로 가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당분간은 중국에서는 여전히 수출이 중요한데, 세계시장에서 수출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 금번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여 이전과 같은 상황으로 완전히 되돌아가려면 약 10년 정도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
- 한중일 FTA가 일본의 소극성으로 여전히 큰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아무튼 동아시아에서 경제협력의 새로운 모델이 요청되고 있다. 한중FTA에는 한·중의 보다 적극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 서비스 산업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서비스 산업의 개방이 확대되고, 한중 FTA 에서도 서비스 산업이 많이 포함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하며, 이 방면에서 양 기관이 공동연구를 수행

하는데 제안하고자 한다.

- G20 서울회의에서 세계경제의 제반 문제들에 실질적인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지만, 금융감독 등에는 실질적인 제안이 가능하지 않을까?
- 개도국은 세계경제 성장측면에서 기여도는 높다. 그러나 실질적인 영향력은 크지 않다.
- 향후 새로운 국제금융질서, 금융감독체계에 대해서 양 기관의 공동연구를 제안하고 싶다.
- 일본에서는 더블 디에 대한 걱정이 크다. 유럽의 채무에 대한 우려도 있고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더블디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일본 역시 채무비율이 높다. 한국의 상황이 궁극하다.

□ 왕이밍 부원장의 기념세미나 특별강연 『국제금융위기 이후의 중국 발전방식의 전환』의 주요 내용

- 글로벌 금융위기는 중국의 발전방식의 모순을 여실히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 중국은 공업(제조업)의 규모 확장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성장방식에 의존하여 왔다. 또한 자원소모적 성장 및 소득격차 확대 경향의 성장방식에 의존하는 모순을 노정하였다.
- 향후 30년 기간동안 발전방식의 제2차 전환이 필요하다.
- 인위적인 순수출액의 대폭 감소는 재고의 대폭 증가라는 결과

를 가져와 국내시장의 공급과잉을 유발할 것이다.

- 소비수요의 역할 강화, 투자지출의 구조 조정과 최적화, 외수의 안정적 확대가 필요하다.
- 산업구조 전환은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한편, 신흥 성장 동력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 중소도시 및 진(鎭)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도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 신흥 도시권을 적극 육성하여, 농민공을 이주, 도시민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 국토개발 방면에서는 산업의 지역간 이전을 적극 유도하고, 미발달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소득분배 조정과 공공 서비스 체계를 완비하여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한다.
- 배출감소와 순환경제 발전을 중점으로 한 지속가능 발전전략이 필요하다. 청정에너지, 재생가능 에너지를 적극 발전시키고 저탄소를 특징으로 하는 공업, 교통체계 건설을 가속화 한다.